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가 인지한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요인

유일영¹ · 유현정²

¹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lem Behaviors Perceived by Mothers of Pre-school Age Children

Yoo, Il Young¹ · Yoo, Hyun Jung²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²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lem behaviors perceived by mothers of pre-school age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11 mothers living in 3 citie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2009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cluding demographic data, child rearing-attitude, and K-CBCL 1.5-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2.0 version. **Results:** Factors related to the mothers' perception on problem behaviors of their preschool child were; first born child, economic status, rearing attitude and occupational status of mother.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mothers reporting lower economic status perceived their children with more behavioral problems. Also, compared to the second or only child, the first born children were perceived to have more problems. Further stud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mother and child interaction among these groups to implement appropriate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Key words: Child, Preschool, Executive function, Birth order, Child rearing

서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 학급에 적어도 1-2명의 문제행동 아동이 있으며(Kim, 2001), 소아우울증,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공격적 행동 등으로 소아 정신과나 상담기관을 찾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Kim & Hwang, 2008). DSM-IV에 따르면 문제행동이란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로 아동이 성장하면서 본인이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Hwang, 1997)이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내재화 혹은 외현화된 부정적 기능(Achenbach & Edelbrock, 1991)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3세 때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mpbell, 2007). 이 시기는 학령전기에 해당되며 신체적,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발달이 빠른 시기이다(Egger & Angold, 2006). 이 시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때에 발달과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Kim, Lee, Moon, Kim, & Oh, 2009). 특히 이 시기에는 여러 영역의 발달적 과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달자체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정상 발달적 행동과 문제행동을 변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Campbell, 1995;

주요어 : 학령전기 아동, 문제행동, 형제순위, 양육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Hyun Jung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77 Fax: 82-2-393-2808 E-mail: hjyoo@yuhs.ac

투고일: 2010년 1월 14일 1차수정: 2010년 3월 3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24일

Egger & Angold, 2006; Lee, Shin, Chun, & Park, 2004), 따라서 정상발달에 대한 개인차가 문제행동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Egger & Angold,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행동으로 확인되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Hester, Baltodano, Gable, Tonelson, & Hendrickson, 2003; Lee et al., 2004), 그러한 행동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증가되고, 심각해지고, 다양해져서 학업부진, 사회적 고립,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위험성이 증가된다(Hester et al., 2003; Powell, Dunlap, & Fox, 2006). 따라서 이 시기에 아동의 문제행동을 미리 발견하여 진단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09; Lee et al., 2004).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와 아동, 환경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Egger & Angold, 2006).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족이며, 특히 어머니이다. 또한 부모의 보고가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라도 유아나 학령전기 아동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은 아동 양육방법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Kim et al., 2009). 즉, 자녀가 문제행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태도나 양육방법을 사용하므로 아동이 더욱 위축되고, 문제행동을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사하고, 그러한 어머니의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아동특성 요인과 어머니 특성 요인으로 확인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인지하는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아동특성과 어머니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머니가 인지하는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확인한다.
- 둘째, 아동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확인한다.
- 셋째, 어머니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확인한다.
- 넷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가 인지하는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서울 근처의 3개 도시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6세 아동의 어머니이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편의표출하였다. 총 3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30부가 수거되어 62.16% 수거율을 보였으며, 미 응답 항목이 많은 3부와 연구 대상에 맞지 않는 자녀(쌍둥이 자녀나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16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11부(57.03%)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크기 프로그램인 G*Power 프로그램에 따라(Erdfelder, Faul, & Buchner, 1996) 효과크기 .15 (중간값),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인 123 명보다 많아서 검정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

Rohner (2005)의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PARQ/C)”를 Na와 Lee (2008)가 한국어로 수정, 번역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부모의 자녀수용-거부와 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기보고식 평정척도로 4점 척도의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수용과 거부, 통제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차원은 역점수 처리되며,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임을 나타낸다. 가능한 점수는 29-116점이며, 한국어로 번역, 타당도 검증 시 Cronbach’s α =.87 (Na & Lee, 200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이었다.

문제 행동

Achenbach와 Rescorla (2000)이 개발하고 Kim과 Oh (2009)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K-CBCL 1.5-5)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8개월-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2개월 동안의 아동의 행동문제를 부모가 0-2 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전체 100문항이며, 1-99번의 문항에 제시되었던 내용 이외에 유아가 보이는 문제행동이 있을 경우 부모가 이를 서술하고 그 정도를 평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K-CBCL 1.5-5는 8개의 중후군 척도와 3개의 상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증후군 척도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와 단일 증후군으로 묶이지 않는 기타 척도이며, 이러한 척도들은 다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의 3개 상위척도를 구성한다. 내재화 문제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합으로 구성되고, 외현화 문제는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의 합으로 구성되며, 총 문제행동은 모든 8개 증후군의 합으로 구성된다. 8개 증후군 척도 중 수면문제와 기타척도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는 포함되지 않고, 총 문제행동의 합산에만 포함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에 따라 Cronbach's α .57-.86이었다.

문제행동 유무는 도구번역자가 제시한 한국규준집단의 표준 점수인 t-score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8개 증후군 척도는 $t \geq 65$ 인 경우에 문제행동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상위 개념들인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은 $t \geq 60$ 인 경우 문제행동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17일부터 6월 9일 까지였다. 서울특별시와 근처의 3개 시에 위치한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 편의표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시설장의 허락아래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안내서와 동의서,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연구에 대한 안내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익명성과 응답내용의 절대 비밀보장, 설문 응답 자료에 대한 보호 및 연구 결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었다. 교사의 설명 후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는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어린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보내도록 하고 연구자가 수집된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행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아동 관련 요인에 따른 문제행동은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어머니 관련 요인에 따른 문제행동은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수의 확인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11명의 어머니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95명(45%), 여자가 116명(55%)이었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4.83세이며, 만 3세가 14명(6.6%), 4세가 63명(30%), 5세가 74명(35%), 6세가 60명(28.4%)이었다. 자녀의 형제관계는 외동인 경우가 49명(23.2%), 외동이 아닌 첫째가 62명(29.4%), 둘째가 87명(41.2%), 셋째 이상인 경우가 13명(6.25)이었으며, 형제가 있는 경우 평균 터울은 38.5개월이었다.

어머니 연령은 평균 36.3세였고, 학력은 대졸이 66.8%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101명(47.9%), 전업주부인 경우가 110명(52.1%)이었다(Tabel 1).

어머니가 인지한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Table 2와 같다.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는 8.5 (± 6.67)점,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는 7.65 (± 5.74)점, 전체문제행동 점수는 25.25 (± 16.79)점이었다. 내재화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이 39명(18.5%), 외현화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이 32명(15.2%), 전체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이 35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1)

Variables	Categories	n (%)	M (SD)
Gender of child	Male	95 (45.0)	4.8 (0.9)
	Female	116 (55.0)	
Age of child (yr)	3	14 (6.6)	38.5 (22.6)
	4	63 (30.0)	
	5	74 (35.0)	
	6	60 (28.4)	
Birth order of child	Only child	49 (23.2)	36.3 (3.4)
	First	62 (29.4)	
	Second	87 (41.2)	
	Third	13 (6.2)	
Birth interval (month)			
Number of children	1	49 (23.2)	36.3 (3.4)
	2	142 (67.3)	
	≥ 3	20 (9.5)	
Age (yr)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48 (22.8)	36.3 (3.4)
	College	141 (66.8)	
	Over college	22 (10.4)	
Economic status	High	0 (0.0)	36.3 (3.4)
	Middle-high	29 (13.7)	
	Middle-middle	125 (59.2)	
	Middle-low	42 (20.0)	
	Low	15 (7.1)	
Employment status	Yes	101 (47.9)	36.3 (3.4)
	No	110 (52.1)	

Table 2.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N=211)

Variables	Categories	M (SD)	Problem behavior	
			Normal n (%)	Clinical n (%)
Total problem behavior		25.25 (16.79)	176 (83.4)*	35 (16.6) [†]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8.50 (6.67)	172 (81.5)*	39 (18.5) [†]
	Emotionally reactive	2.30 (2.19)	201 (95.26) [‡]	10 (4.74) [§]
	Anxious/depressed	3.07 (2.36)	198 (93.84) [‡]	13 (6.16) [§]
	Somatic complaints	1.54 (1.79)	198 (93.84) [‡]	13 (6.16) [§]
	Withdrawn	1.59 (1.91)	191 (90.52) [‡]	20 (9.48) [§]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		7.65 (5.74)	179 (84.8)*	32 (15.2) [†]
	Attention problems	1.32 (1.55)	200 (94.79) [‡]	11 (5.21) [§]
	Aggressive behavior	6.32 (4.70)	202 (95.73) [‡]	9 (4.27) [§]
	Sleep problems	2.01 (1.86)	200 (94.79) [‡]	11 (5.21) [§]
	Etc.	7.09 (4.80)		

*t<60; [†]t≥60; [‡]t<65; [§]t≥65.

Table 3.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Children's Characteristics

(N=211)

Variables	Categories	n	Total problem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Normal	Clinical	χ^2/t	p	Normal	Clinical	χ^2/t	p	Normal	Clinical	χ^2/t	p
Gender	Male	95	79	16	0.01	>.999	76	19	3.14	.085	80	15	0.83	.379
	Female	111	97	19			103	13			92	24		
Age (yr)	3-4	41	89	17	2.28	.320	87	19	1.85	.390	87	19	1.34	.512
	5	65	63	16			62	11			62	17		
	6	100	24	2			23	2			23	3		
Sibling	No	50	40	10	0.55	.514	42	8	0.04	.824	39	11	0.54	.532
	Yes	156	136	25			137	24			133	28		
Birth interval		211	169	32	0.15	.879								
Birth order	Only child	48	39	9	7.50	.023	42	6	10.57	.005	40	8	11.24	.004
	First	62	44	18			45	17			44	18		
	Second or higher	101	89	12			92	9			92	9		

(16.6%)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문제는 위축이 20명(9.49%)으로 가장 많았고, 불안/우울 13명(6.16%), 신체증상 13명(6.16%), 정서적반응성 10명(4.7%)이었다. 외현화 문제는 주의집중문제 11명(5.21%), 공격행동 9명(4.27%)이었다. 그밖에 수면문제가 11명(5.21%)이었다.

아동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Table 3과 같다. 형제순위($\chi^2=7.50, p=.023$)에 따라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형제순위 중 맏이의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문제행동이 모두 가장 많았다. 성별, 연령, 형제관계, 터울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은 Table 4와 같다. 경제상태($\chi^2=11.64, p=.003$), 어머니의 양육태도($t=4.62, p=.000$),

어머니 연령($t=8.29, p=.007$), 어머니의 직업($\chi^2=6.26, p=.016$)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

아동의 문제행동에 따른 각 특성의 차이를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한 결과 형제순위, 경제상태,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직업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가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령전기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수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형제순위, 경제상태, 어머니의 직업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양육태도에서 거부적인 점수가 1점씩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인지하는 문제행동이 1.1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를 분석하면 외동은 둘째 이상의 자녀보다 문제행동이 있

Table 4.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Mother's Characteristics

(N=211)

Variables	Categories	n	Total problem behavior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Normal	Clinical	χ^2/t	p	Normal	Clinical	χ^2/t	p	Normal	Clinical	χ^2/t	p
Child-rearing attitude		211	51.99±7.37	58.40±8.03	4.62	<.001	52.02±7.34	58.91±8.05	4.82	<.001	52.05±7.45	57.54±8.03	4.10	<.001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48	38	10	0.96	.619	38	10	3.24	.198	40	8	.37	.832
	College	141	120	21			124	17			115	26		
	Over college	22	18	4			17	5			17	5		
Economic status	Low & middle-low	57	40	17	11.64	.003	45	12	2.30	.317	40	17	9.45	.009
	Middle-middle	125	108	17			108	17			104	21		
	High & middle-high	29	28	1			26	3			28	1		
Age (yr)	<35	81	60	21	8.29	.007	65	16	2.15	.168	59	22	6.57	.017
	≥35	130	116	14			114	16			113	17		
Employment status	Yes	101	91	10	6.26	.016	93	8	7.90	.007	86	15	1.70	.217
	No	110	85	25			86	24			86	24		

Table 5.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of Problem Behavior

(N=211)

Variable	Division	Odds ratio	p	95% CI
Child-rearing attitude		1.13	<.001	1.06-1.20
Sibling order	Second or higher		.012	
	Only child	3.43	.046	1.02-11.50
	First	5.36	.003	1.74-16.48
Economic status	High or middle-high		.021	
	Middle-middle	4.81	.204	0.43-54.21
	Low or middle-low	14.13	.037	1.17-171.18
Age of mother (yr)		0.97	.719	0.84-1.12
Employment status	Yes			
	No	2.65	.034	1.08-6.53

CI=confidence interval.

을 위험이 3.31배, 말이는 동생들에 비해 문제행동이 있을 위험이 5.24배 높았다. 경제상태가 상, 중상에 비해 중하, 하인 경우 문제행동이 있을 위험은 14.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비해 전업주부인 경우에 아동의 문제행동이 2.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의 16.6%가 전체 문제행동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18.5%, 외현화 문제행동이 15.2%로 보고되었다. 이는 Campbell (1995)의 연구에서 일반 아동의 10-15%가 약하게나마 행동문제가 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 유아의 3-4% 정도가 향후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할 것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ee et al., 2004)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임상집단에서는 준 임상집단과 임상집단을 함께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높게 보고된 문제행동은 내재화문제행동 중 위축이었다.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낮은 경제상태, 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으로 1점 상승할 때마다 문제행동이 1.1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보고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으며(Lee & Youn, 2005),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한 유아가 아동기에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Hwang, 1997; Kim et al., 2006; Lee & Hyun, 2008; Lee & Seo, 2006)는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해 준다. 이는 아동의 성장 환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 정서, 언어, 사회적 발달과 문제행동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3-6% (Achenbach & Edelbrock, 1981), 그리고 높게 보고된 연구에서는 10-15% 정도 발생하는 것(Campbell, 1995)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인 경우 30% 정도로 높게 추산되고 있다(Qi & Kaiser, 2003). 또한 Ko와 Lee (2008)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주의산만, 사회성 부족, 인지발달 지연, 우울의 문제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중간이라고 보고한 어머니의 보고와 중하/하라고 보고한 어머니의 보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하/하인 집단은 중상/상인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이 14.1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행동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문제아동으로 인지함에 따라 나타나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수준이 낮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순위가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의 출생순위의 아동에 비해 외동인 아동이 문제행동이 3.43배, 말이는 5.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우울과 불안, 공격성, 내면화 행동문제에서 형제순위가 첫째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고(Lee et al., 2004; Marleau, Saucier, & Allaire,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둘째가 가장 낮은 문제행동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Lee, Kim, & Oh, 2009). Tremblay 등(2004)도 형제순위가 첫째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린 동생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많다고 보고하였다(Tremblay et al., 2004). 그러나 Lee 외(2009)는 외동이 다른 형제 순위에 비해 문제행동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문제행동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이의 문제행동 수준이 다른 출생순위의 아동보다 높게 보고된 것은, 둘째의 출생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둘째의 출생으로 인한 가족적응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말이와 놀이나 대화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고,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말이와 점점 더 많은 갈등을 갖게 되기(Campbell, 2007)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는 아직 어린 말이에게 “형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Campbell, 2007)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동생이 생긴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분산되고 동생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이게 된다. 한편 부모로부터 관심을 유발하려 하고,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어머니는 공격성과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로 인지할 수 있다(Lee et al., 2004).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비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자녀가 문제행동이 2.6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취업모의 아동이 전업주부의 아동보다 문제행동이 적고, 사회적 기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04; Yang, 2002)와는 유사하나 취업모의 아동이 전업주부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이 많았다(Lee et al., 2009; Lee & Seo, 2006)는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아동의 문제행동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취업모의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외에 다른 돌봄 제공자에 의해 양육이 되었고, 그 결과 전업주부의 아동에 비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Lee et al., 2004). 그렇지만, 취업모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의 행동을 특별히 문제라고 주의 깊게 생각할 가능성이 적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Bang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태도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양육태도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그동안 교사의 시각에서 조사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본 연구는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사한 것이 의의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환경이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의 관점은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Kim et al., 2009)고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특성으로는 말이인 경우, 그리고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낮은 경제수준, 그리고 전업 주부인 어머니의 경우에 어머니들이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전체 변수가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34.5% 정도만 설명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로 아동의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또래관계),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훈육방식 등이 선행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아동의 문제행동의 설명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되었던 어머니 양육태도와 경제상태 외에 형제순위를 부각시킨 점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형제 중 맏이가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하며, 이는 부모의 관심분산, 그리고 동생의 존재로 인해 맏이에게 아동으로서의 모습보다 성숙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첫째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맏이를 아동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며 자존감을 높여주도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1-82.
- Achenbach, T. M., Howell, C. T., Quay, H. C., & Conner, C. K. (1991). National survey of problems and competencies among four to sixteen years olds: Parent's reports for normative and clinical sampl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6*(3), 1-131.
- Achenbach, T. M., & Rescorla, I. A. (2000). *Manual for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ng, K. S. (2004). Child-rearing attitude and burde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and temperament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10*, 217-224.
- Brook, J. S., Whiteman, M., & Zheng, L. (200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isks for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65-76.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6*, 113-149.
- Campbell, S. B. (2007). *Behavioral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2nd ed.) (Min, S. H., Trans.). Seoul: Sigm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Egger, H. L., & Angold, A. (2006). Common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preschool children: Presentation, nosology, and epidemi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313-337.
-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11.
- Hester, P. P., Baltodano, H. M., Gable, R. A., Tonelson, S. W., & Hendrickson, J. M. (2003). Early intervention with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behavioral disord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and practices.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6*, 362-381.
- Hwang, H. J. (1997).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in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 331-350.
- Kim, H. J. (2001).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arenting style: Does gender socialization matte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 81-95.
- Kim, Y., Han, T. S., Jeung, I. H., Park, Y. K., Hwang, H. J., & Ku, H. A. (2006).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s of rearing, temperament, cognitive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4*(11), 229-250.
- Kim, Y., & Hwang, H. J.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child's temperament and psychological variables within the familial environment to behavior problems. *Child Education Research, 28*(3), 23-49.
- Kim, Y. A., Lee, J., Moon, S. J., Kim, Y. J., & Oh, K. J. (2009).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117-136.
- Ko, I. S., & Lee, J. S. (2008). Problematic behaviors in preschool: A socio-demograph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6*(9), 33-45.
- Kwon, M. K., Kim, H. W., Ahn, H. Y., & Lee, J. W. (2005).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oblem conduct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11*, 132-141.
- Lee, C. S., & Hyun, E. J. (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orality,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 223-238.
- Lee, E. Y., & Youn, M. S. (2005). Child stress and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sibling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 *Human Science Research, 10*, 137-164.
- Lee, J., Kim, Y. A., & Oh, K. J. (2009). Discriminant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171-186.
- Lee, K. S., Shin, Y. J., Chun, Y. J., & Park, J. A. (2004).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problem among young childre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53-73.
- Lee, Y. S., & Seo, S. J. (2006).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5), 143-155.
- Marleau, J. D., Saucier, J. F., & Allaire, J. F. (2006). Birth order, behavioral problems,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siblings age 4 to 11 years from a 2-child famil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 855-863.
- Na, E. S., & Lee, J. I. (2008). A test 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 the Korean vers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control questionnaire: A parenting scale for Korean parents having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 215-247.
- Oh, K. J., & Kim, Y. A. (2008). *CBCL 1.5-5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parental*. Seoul: Huno-Consulting.
- Powell, D., Dunlap, G., & Fox, L. (2006).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the challenging behaviors of toddlers and preschoolers. *Infant & Young Children*, 19, 25-35.
- Qi, C. H., & Kaiser, A. P. (2003).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 188-216.
- Rohner, R. P. (2005).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Tremblay, R. E., Naginm D. S., Seguin, J. R., Zoccolillo, M., Zelazo, P. D., Boivin, M., et al. (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Pediatrics*, 114, 43-50.
- Yang, K. S. (2002). The effect of a mother's employment and children's self-concept on the behavior problem. *The Journal of Korea Education*, 11(2), 87-98.